더위 보다 뜨거운 추모 열기
오늘 옛 도청서 '시민추모제'

광주·전남 노 前 대통령 조문 7만명 넘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닷새째인 27일에도 추모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특히 28일엔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시민추모제와 진도 씻김굿 등 자발적인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추모위가 요청한 '광주 노제(路祭)'는 장례 일정상의 이유로 무산됐다.

분향소 29곳으로

27일 현재 광주·전남에 마련된 분향소는 광주 9곳, 전남 20곳으로 지난 23일 이후 조문객은 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등 공식 분향소는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에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추모객들의 마음을 담아 적는 대자보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

추모객들은 가로·세로 1m 크기의 흰색 대자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당신처럼 깨끗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다' 는 등 노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었다.

광주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인 최창무 대주교를 비롯, 신부와 수녀 등 30여명이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는 등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거 엿새째인 28일 오후 7시 옛 도청 앞 광장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 주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추모 문화제는 모심과 진혼, 씻김, 종천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추모사를 낭독하고,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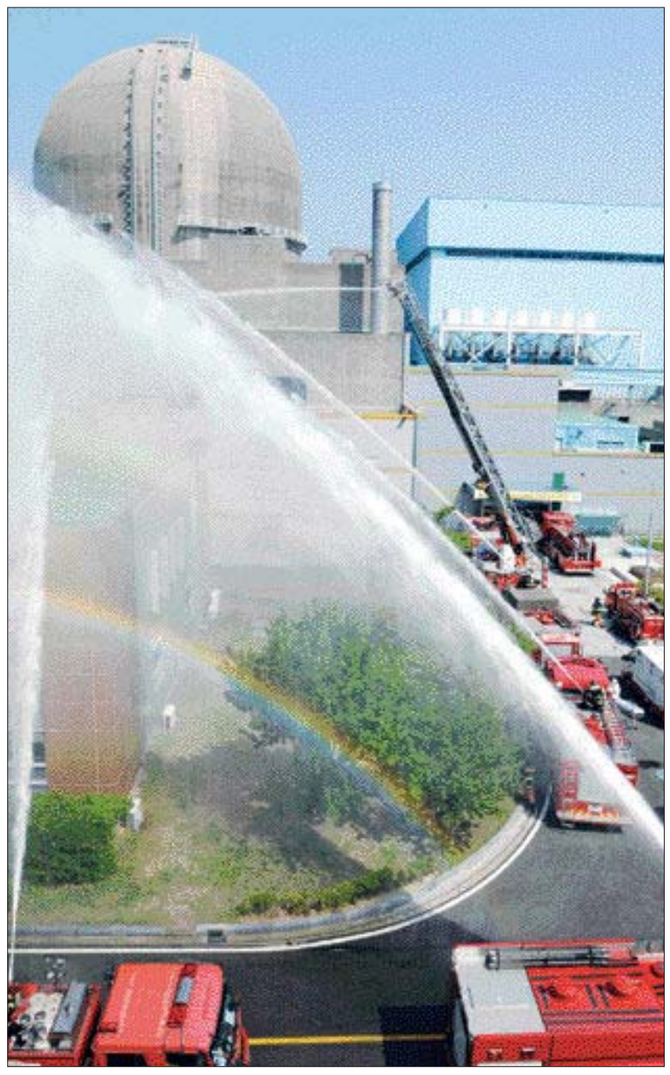
진도에서는 28일 오후 8시께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는 씻김굿이 진행된다.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열리는 씻김굿은 4시간에 걸쳐 '노 전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염원할 예정이다.

○…옛 전남 도청 시민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모객들이 조의록 쓰는 것을 돕거나, 근조리본과 국화를 추모객에게 나눠주는 것을 돕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추모객에게 국화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 조은제(18·광주시 남구 백운동)양은 "갑작스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가슴이 아팠다"며 "추모객에게 국화를 나눠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려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단체 조문

○…시각장애인 9명이 26일 오후 4시께 옛 전남도청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했다. 이들은 분향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의 영정에 국화를 바치며 애도를 표했다. 광주 세광학교에서 온 김훈(38·시각장애 1급)씨는 "한 번도 노 전 대통령을 본 적은 없지만, 약자의 편에 설 줄 아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방사능 누출 막아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가상한 '2009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및 방사능 방재합동훈련'이 27일 오전 영광원자력발전소 1호기 앞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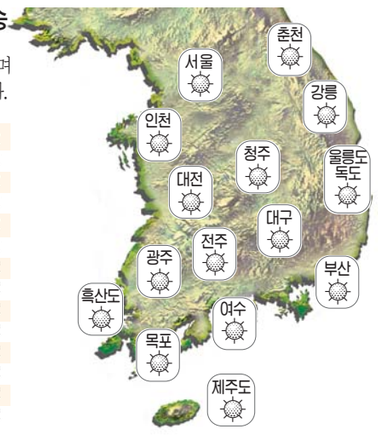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 해짐 19시 39분 — 달뜸 08시 55분 / 달짐 23시 28분

분향소 가는길 땀방울 송송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아침에 안개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맑 음	16/31℃
목 포	맑 음	16/27℃
여 수	맑 음	17/22℃
완 도	맑 음	15/28℃
구 례	맑 음	13/31℃
해 남	맑 음	13/28℃
장 흥	맑 음	13/28℃
고 흥	맑 음	13/27℃
순 천	맑 음	15/28℃
영 광	맑 음	15/29℃
진 도	맑 음	13/28℃
전 주	맑 음	15/31℃
남 원	맑 음	13/30℃
흑산도	맑 음	15/21℃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목포	05:02	10:09
먼바다	북동~동	1.0~1.5m		17:02	22: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3.0m	여수	11:42	05:46
먼바다	북~북	1.5~3.0m		--:--	17:4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금)	30(토)	31(일)	6/1(월)	2(화)	3(수)
날 씨						
최저/최고	16/30	16/29	15/29	15/29	16/29	17/28

출범 20돌 전교조 "국민 속으로"

광주지부, 저소득층 학생 장학재단 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8일 출범 20년을 맞는다.

전교조는 20년간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학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 교사의 지역 내 역할, 학생 분포 등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교조는 향후 2년 안에 100개의 학교 모델을 내놓는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 물결이 일었던 1987년 9월27일 한 신대에서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설립하면서 교직원 노동운동의 막을 올렸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전개했던 전교협은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6월엔 조합원 수가 최대 9만4천400여명까지 늘어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사랑은 이때가 정점이었다. 집행부가 관료화되고, 투쟁 성향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비판이 일면서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다.

결국 2003년 6월 최고치였던 조합원 수는 지난해 12월 7만7천700여명으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각종 개혁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전교조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따라서 약관(弱冠)의 전교조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정섭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 조성 등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일곡동 무인 분향소 추모객 '북적'

공원 옆 인도에 설치 주민 자유롭게 방문

조문객 1,200명 넘어서 … 갈수록 큰 호응

광주시 북구의 한 주민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인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공간을 마련, 추모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 B학원장 김상훈(35·광주시 북구 일곡동)씨가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북구 일곡동 일신초등학교 맞은편 인도에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작은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엔 영정사진을 포함한 국화와 향, 방명록 등이 놓여 있으며, 여느 분향소 분위기와 다를 게 없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상주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이 분향소는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도록 무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이 분향소를 다녀간 조문객은 1천200여명. 여느 분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조문객 수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김씨가 이 분향소를 설치한 이유는 탈(脫) 권위와 지역주의를 외치며 서민 대통령을 자처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곳에 분향소가 마련되자 주민들은 처음에 의아해 했으나 지금은 가족단위로 나와 조문을 하고 자발적으로 주변정리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추모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김씨는 "평소 인간적이고 서민과 함께 하려는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었다. 항상 국민 앞에선 한 없이 자신을 낮췄다"며 "서거 직후 김해 봉하마을에 조문을 가려고 했으나 두 자녀가 갑작스레 몸이 아파 가지 못하는 바람에 대신 추모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30도 넘는 무더위 1주일간 지속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0.3도를 비롯한 ▲구례 31도 ▲장성 30.1도 ▲화순 30.1도 ▲순천 29.5도를 기록하는 등 한 여름 날씨를 보였다. 지난 2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 1주일 동안 갑작스런 소나기 이외에는 비 소식은 없다"며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무진로·빛고을로·지방도 49호선
6월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

제2순환도로에 이어 무진로와 빛고을로,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등 3개 노선이 오는 6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무진로 4.28㎞(광산구 우산동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회~서구 유촌동 26호 교통광장) ▲빛고을로 4.6㎞(서구 유촌동 26호 교통광장~북구 동림동 동림IC)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22.1㎞(광산구 승촌동 나주시계~광산구 오산동 장성군시계) 등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의 출입이 전면금지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